

교회 소식

선교회 / 교회학교 / 부서

- 1. 매주일 권사중보기도회
일시: 오전 9시, 11시 / 권사회실

안내

- 1. **침례식**
일시: 7월 13일(주일) 오후1시 / 장소: 교회 앞마당
- 2. **선교헌금작성**
기간: 6월 15일(주일)~7월 13일(주일)
*작성서를 작성하신 후에 헌금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3. **주일 교구버스 노선변경 및 3호차 신설**
*배차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제 49회 전국 초교파 여성금식 기도대성회**
일시: 7월 29일(화)~8월 1일(금)
장소: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 담당교역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5. **성경학교**
금일 성경학교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 1. **웹시바 워십선교단 단원모집**
모임시간: 매주일 오후 1시 30분 / 유아유치부실
문의: 양하영 목사

후원 선교사 / 교회

<후원 선교사>
베트남 김건홍 선교사
네팔 김진만 선교사
레바논 김종현 선교사
<후원 교회>
위례하늘교회_홍성필 목사

온/라/인/헌/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을 위하여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은행 441501-01-491593

예금주 |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예배와 교회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대성전
2부	오전 9시	대성전
3부	오전 11시	대성전
4부(위성)	오후 1시	소성전
청년부	오후 1시	대성전

교회학교 주일예배

유아유치부	오전 11시	유아유치부 예배실
초등부	오전 11시	초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사랑부	오전 11시	사랑부 예배실

정기예배

새벽예배(월-금)	오전 5시	대성전
수요예배(위성)	오전 10시 10분	대성전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10분	대성전

유튜브 온라인 예배



<http://www.youtube.com/@yfgangdong>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여 연결.

교/회/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1길 11(구:천호동 300-1)
Tel.02-474-2021 Fax.02-484-2021

하/남/기/도/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47 1층 123호

홈/페이지

<http://www.yfggangdong.com>

2025년 7월 13일

통 3권 <제 28호>

주보

담임목사 변성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13절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교회 YOIDO FULL GOSPEL GANGDONG CHURCH 7월

주/일/예/배	*다같이	
경배와 찬양	다같이	
*말씀선포	사회자	시 37:5~6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다같이	찬송가 273장(통 331)
대표기도	1부	양하영 목사
	2부	송원홍 장로
	3부	김병환 장로
성경봉독	1 / 2 / 3부	눅 5:1~11
찬 양	2부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루살렘 찬양대
설 교	1 / 2 / 3부	변성우 목사 “빈배의 기적”
	4부(위성)	이영훈 목사
	4부(청년)	조영태 목사
결신기도	설교자	
헌금기도	1부	이현식 안수집사
	2부	임경린 안수집사
	3부	권일혁 안수집사
*광 고	사회자	
*찬 송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축 도	설교자	
*찬 양	사랑하는 자여	

금/요/성/령/대/망/회 7월 18일 오후 8시 10분

설교	대표기도	헌금기도
변성우 목사	문귀순 권사	임경린 안수집사

예/배/위/원 7월 20일 주일 | 7월 25일 금요일

예배	찬양대명	대표기도	헌금기도
주일 1부	찬양팀	김경채 전도사	김승호 안수집사
주일 2부	호산나찬양대	김영진 장로	전우청 안수집사
주일 3부	예루살렘찬양대	송원홍 장로	윤재선 집사
금요성령대망회	찬양팀	이화수 권사	안원준 집사

“빈 배의 기적”(누가복음 5장 1~11절)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의 저주와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지만, 이 믿음 이후의 세상에서의 삶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살던 레위인들조차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에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시 42:1~4).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수록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시 42:5).

1. 내 안의 주님을 느끼는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계 3:20). 주님은 “나 여기 있다. 문을 열면 내가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십니다. 그러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못 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며, 복잡하며,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도 아려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의 권유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지만 그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그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 뜨고 있는 새벽에 빈 배에 앉아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니다. 좀처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계속적인 찾아오심과 두드림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게 합니다.

2. 빈 배의 설움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마음에 의기소침하여 그물을 씻습니다(5절). 우리도 열심히 하는 데도 소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진실함을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내일을 소망하라고 하지만, 당장 오늘을 살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꿈을 꾸지만, 현실은 여전히 빈 배와 같은 처지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못 잡았는데 내일은 잡힐까? 기대와 소망보다 낙심과 체념이 더 지배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데, 기쁨과 기대보다 서러운 적도 많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빈 배의 설움은 사라집니다.

3. 빈 배의 기적

주님의 찾아오심과 말씀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명령이나 지시, 혹은 훈수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수고와 결과를 잊고 그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 등이 이와 같습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것을 잊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좋은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베드로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빈 배는 만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